

## 일제강점기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과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의 의미

강 미 정\*

1. 서론
2. 일제강점기 전설의 의미
  - 1)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
  - 2) 민속과 향토문학으로서의 전설
3.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
  - 1) 채집 전설의 서사성
  - 2) 문학사적 가치와 구비문학
4.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전설 연구 및 전설 채록 활동을 중심으로, 조선인에게 전설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전설 수집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전설은 이야기가 생성된 근거물을 중심으로 민간에 전승되는 구비 서사의 한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정의는 1920년대 초반부터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전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설화 양식으로서 신화와 전설, 민담의 경계가 분명하게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대상의 역사교육이 부재한 현실에서 전설은 역사성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며, 각종 향토문화 답사 및 국토 순례 여행을 통해 관심이 고조된 민간 전승의 전설은 민속과 향토문학을 상징하는 서사 중 하나였다. 특히 1926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설 수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연구교수(superego69@hanmail.net)

집 활동은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갖는 다수의 전설 채록에 기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설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샤머니즘과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문학사 연구 차원이나 역사소설과 역사동화 창작 과정에서 전설의 가치가 재평가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역사적 상징으로서, 또는 민속과 향토문학으로서의 전설이 갖는 가치와 전설 채집 활동을 통한 서사성의 발견,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 등은 광복 이후 한국 구비문학 연구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 주요어: 전설, 역사성, 민속, 향토성, 문학사, 서사성

## 1. 서론

전설은 축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전해오는 이야기’를 뜻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전승된 것뿐만 아니라 동시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제목에서 ‘전설이와(傳說易訛)’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전해들은 이야기는 와전되기 쉽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 사용된 ‘전설’이라는 개념은 ‘전문(傳聞)’과 같이 서사문학의 한 양식과는 무관하다.

일제강점기 조선 전설 자료집 간행과 관련하여 최원오가 논의했듯이 전설이 문학의 한 갈래로 인식된 것은 1910년대 이후의 일이다.<sup>1)</sup> 조희웅, 김광식·이시준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비문학의 한 갈래로서 조선 설화에 대한 관심은 근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sup>2)</sup>, 1910년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 이야기집과 속담(朝鮮の物語集附俚言)』, 1912년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일한공동민간설화(日韓共通民間說話)』 등이 이

1) 최원오, 「일제강점기 조선 전설 자료집의 간행과 전설 범주의 설정」,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99~133쪽.

2) 조희웅,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 설화」, 『어문학논총』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1~2쪽; 김광식·이시준, 『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 연구』, 제이앤씨, 2014.

를 증명한다.

근대 일본에서의 전설에 대한 관심은 1880년대 역사·인류학자를 중심으로 태동되었다.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sup>3)</sup>에 따르면, 쓰보이 쇼코로(坪井五郎),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고카네이 요시키오(小金井良精) 등은 일본 민족 기원설에 대한 서양인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일본 신화를 중심으로 한 단일민족기원설을 제기했고, 그 가운데 도리이 류조는 1910년대 조선의 민속 조사를 기획·실천한 사람이었다. 일본 신화가 일본 민족주의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던 데 비해, 민담으로서의 설화나 전설에 대한 관심은 교육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는 1917년 다카기 도시오의 『신일본교육석신(新日本教育昔嚀)』이 증명한다. 『신일본교육석신』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저로 2014년에 『신일본교육구전설화집』로 출간되었는데 그 해제에 따르면, 다카기는 1910년 이전까지 신화학에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다가 1910년대 한일 비교 설화 등 전설, 민담 연구로 학문 영역을 넓혔다고 한다. 그는 일본의 구전 설화뿐만 아니라 이솝 우화를 비롯한 동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설화의 가치를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설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23년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에 등장하는 ‘고담(동화, 유리설화, 설화), 전설, 신화’ 등의 개념이다. 최남선의 전설 개념은 때로는 신화와 구별되지 않고, 때로는 ‘고담(古談)’, ‘민담(民譚)’으로 불리는 설화와 구별되지 않는 경향도 있다. 그럼에도 최남선에 의해 환기된 전설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심(朝鮮心)을 기반으로 한 역사의식 고취 차원에서 구비 전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언론사의 전설 채집운동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이제 일제강점기 전설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설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규명하

3)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新曜社. 第14章 記紀神話の蘇生, 2001.

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전설 채집에 따른 구비 서사문학으로서의 전설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전자는 역사적 또는 민족적 차원에서 신화와 전설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후자는 구비 전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담아내는 서사 구조와 문학적 가치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 연구와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 채집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 2. 일제강점기 전설의 의미

### 1) 역사적 상징으로서의 전설

일제강점기 '전설'을 설화의 한 형식으로 규정한 예는 1923년 10월 9일 『동명』 제9호에 연재된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7(開題七) 신화(神話)」에서 찾을 수 있다.<sup>4)</sup> 그는 「개제7 '신화」에서 역사 연구의 재료로서 설화의 형식을 '고담(古談) 또는 유리설화', '전설', '신화'로 구별하고, 그 가운데 전설을 '반역사(半歷史) 반공상적(半空想的)'인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념으로서 신화, 전설, 설화(고담)를 구별했는지라도 그가 주목한 것은 신화였다. 이는 「개제8」에서 '전설'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음에도 "선민의 물질적 생활의 흔적인 석기·토기도 남부럽지 아니할 만한 양과 질이 남아 있음을 다 행히 여기는 우리는 한 옆으로 정신적 생활의 흔적인 신화·전설에는 시방까지 전승하는 것이 비교적 변변치 못하고"라고 하면서,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 유교적 사상'과 '역사가들의 과학적 태도'가 고전설(古傳說)을 폐기·삭삭(刪削)·개량(改良)·수정(修正)함으로써 '설화적 자가상실(說話的 自家喪失)'에 이르게 되었다고 치부한 데서도 확인된다.<sup>5)</sup> 즉, 그가 인식한 전설은 반역사적·반공상적 이야기임에도 그 자체로서 신화와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제8」의 대부분이 개벽설화, 건국신화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라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4)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7 신화」, 『동명』 제9호, 1923.10.29.

5)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8 전설」, 『동명』 제10호, 1923.11.5.

이처럼 최남선의 전설 개념이 신화와 혼재된 데에는 일본인의 설화 연구 경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1920년 다카하시 도루의 「단군 전설에 대하여」이다.

[檀君 傳說에 對하여] 朝鮮에 檀君 傳說이 有호도다. 檀君으로써 朝鮮人 全部의 祖王이오 朝鮮 民族의 始原이라 云호는도다. 當今 無教育호 朝鮮人으로 三韓을 不知호며 三國을 不知호는 者는 其數 | 眞實如林如雲타 홀지나 檀君의 傳說을 不聞不知호는 者는 庶乎烏有호리로다. 朝鮮人이 此 知識과 信念을 根據로 建創호 宗教에 檀君敎가 有호디 一持 相當히 教徒를 聚集호얏더라. 予는 本 論文에 檀君 傳說은 果然 一般 朝鮮人이 信仰호과 如호 形態에 對호야 此를 學術的 歷史的으로 是認 與否를 論究코 자 호노라. 元來 始初로 至極 冷靜호 研究의 態度로써 是에 臨호은 無論 又 極力 焦思호야 現存 文獻을 博涉攷證호얏도다.(中略) 그리고 傳說이 漸漸 發展호에 從호야 漸漸 小說의 色彩에 濃厚호고 또 古傳說的 趣味를 減殺호에 至호은 大勢에 免치 못호 바이로다. 以上 述호여 온 것과 如히 檀君으로써 或은 帝釋의 孫이라 호고 或은 朱蒙이라 호고 或은 夫妻의 父라 호은 何者던지 後世에 添加호 扮飾이오 本 傳說의 原形은 單只 北朝鮮 最初의 君長에 檀君이 잇는디 妙香山에 降호야 神德으로써 民을 治호얏다 호에 不過호도다. 然則 檀君은 北朝鮮의 傳說이나 南朝鮮과는 何等 關係가 업스니 南朝鮮人은 可及의 新羅의 始祖 赫居世로써 祖王이라 호야 崇拜호고 祭祀호리로다. 檀君敎에서 躡君(린군)으로써 全朝鮮 民族의 始祖로 推立호 것은 아즉 史上에 其證據를 發見호에 不能호 바에 屬호이로다.(完)<sup>6)</sup>

논문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카하시 도루는 이 시기 조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단군 사상을 부정 또는 폄훼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군신화’를 ‘전설’로 부르고, 이른바 ‘학술적·역사적 연구 태도’를 내세워 단군 전설이 후대 첨가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단군 전설은 고구려계를 잇는 북조선의 전설일 뿐이며, 남조선의 전설은 신라계를 잇는 혁거세 전설이 유력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처럼

6)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檀君 傳說에 對호야(1)~(5)」, 『매일신보』 1920.3.6.~3.10.

신화와 전설을 뒤섞고 단군 신화를 격하하거나 그 증거를 부정하는 것에서 일본 관학자들의 식민사학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즉 임나일본부설을 비롯한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설이나 일선동조론과 같은 식민사학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화까지 전설의 일부로 동원할 수 있는 셈이다.

신화를 전설의 하나로 간주한 것은 1920년대 최남선도 비슷하다. 그는 「통속강화 개제7 '신화」에서 “문자 기록이 생기기 전에는 성음으로 하는 설화가 사상 전달·사실 전승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전제 아래 “설화는 종교상 경전 노릇을 하며, 교육상 독본 노릇을 하였다.”라고 단정한다. 비록 설화의 범주에 ‘신화’, ‘전설’, ‘민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을지라도, 「개제8 '전설」에서 언급한 것들은 대부분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단군, 고구려, 부여, 신라, 가락’의 신화에서 ‘난생설화’에 주목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 스스로 언급한 ‘생성 시대의 지식과 관념’을 표상하는 전설의 가치를 주목하지는 못했다.<sup>7)</sup>

개념적 차원에서 ‘전설’의 의미를 확정하고, 전설 양식이 갖는 의미를 인식했음에도 최남선이 ‘전설’과 ‘신화’를 뒤섞은 것은 조선 신화에 대한 일본인의 연구 태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조선인에 의한 전설 채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화를 중심으로 한 설화 관념에서 최남선이 주목한 것은 설화 자체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었다.

『동명』 제12호(1923.11.19.)부터 제2권 제3호(1924.1.14.)에 연재한 「외국으로서 귀화한 조선 고담」에서 그는 “조선하고 세계하고 문화상 관계가 어찌케 오래고 갓잡고 미묘한 것을 다시 한번 정신차리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라고 서술한다. 이 연재물에는 「몽고의 흥부 놀보」, 「인도의 토생원 별주

7)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개제7 '신화」, 『동명』 제9호, 1923.10.22. 이 글에서 최남선은 “傳說의 價値는 어느 人物이나 事件을 傳하는 點에 있는 것 아니라 돌이켜 그 人物 그 事件을 부친 時代 及 社會를 알려줌에 있는 것이다. 또 그 傳說이 表示하는 어느 遼遠한 年代의 일을 傳하는 點에 있는 것 아니라 돌이켜 그 傳說이 生成한 어느 時代의 知識·觀念 등을 보여 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古傳說을 상고하여 보면 意外의 貴重한 材料와 神奇한 暗示를 그 가운데서 發見할 수 있다.”라고 서술한다.

부」, 「은진 서낭자도 인도로부터」, 「지봉유설의 일사인(一士人)」 등 네 편의 설화가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1926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7회에 걸쳐 연재한 「조선역사급 민속지상의 호(朝鮮歷史及民俗志上の虎)」, 『동아일보』 1927년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27회에 걸쳐 연재한 「토끼 타령」 등에서도 설화의 보편성 차원에서 호랑이와 토끼 전설을 다루고 있다. 「토끼 타령」은 다음과 같이 종결된다.

[토끼 타령-전설의 擴布上으로 보는 人類文化의 原始世界性] 三國史記의 龜兔談은 진작부터 朝鮮에 流入하여 宗教의 意味와 關係는 純然한 一民話를 일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朝鮮을 中心으로 하는 一種 獨特한 形式을 일우어서 日本 其他에 流布되었다. 要하건대 人類의 文化는 그 本質과 原始態에 잇서서 네적부터 世界的 全人類의 으로 생겨서 天然과 人爲의 何種을 勿論하고 아모것도 업섯스니 위선 朝鮮의 文化와 朝鮮人의 生活 內容으로만 보아도 東方의 隱士國이니 深闊니 해야 門을 꼭 닫고 혼자 산 듯 하면서 실상은 까마아득한 넋날의 넋날로부터 世界的 養分으로써 골고로 自己生活의 內容을 滋潤하여 왔는데 이것은 모든 方面에서 다 適例를 指摘할 수 잇거니와 說話도 그 中の 한아임을 以上에 약간 說明한 다 한 것이다.<sup>8)</sup>

이에 따르면 「토끼 타령」은 예전 조선에 유입된 설화이며,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일본과 기타 지역에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동방의 은사국’, ‘심규’ 등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설화의 세계적 보편성과 조선 문화의 특성을 아울러 밝히고자 하고 있으나, 최남선의 설화 개념은 본질적으로 신화적 차원의 종교성과 역사 해석을 위한 문화적 상징의 하나로 해석되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역사적 상징으로서 전설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태도 가운데 하나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했던 전설 채집 운동도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8) 최남선, 「토끼 타령(27)」, 『조선일보』 1927.2.4.

## 2) 민속과 향토문학으로서의 전설

설화 양식에서 전설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이른바 ‘국토 순례기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1920년대 전반부터 동아일보사와 개벽사는 ‘백두산 강연회’, ‘조선문화 조사’ 등 역사적 자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구인모가 논의했듯이 이 시기 국토 기행은 일종의 ‘순례의식’이 전제된 것이었다.<sup>9)</sup> 그 중 하나인 최남선의 『심춘순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巡禮記의 卷頭에〕朝鮮의 國土는 山河 그대로 朝鮮의 歷史며 哲學이며 詩며 精神입니다. 文字 아닌 才 가장 明瞭하고 正確하고 또 자미 있는 記錄입니다. 朝鮮人의 마음의 그림자와 生活의 자취는 고소란히 똑똑히 國土의 우에 박여 있서 여서한 風雨라도 磨滅시키지 못하는 것이 잇슴을 나는 밋습니다. 나는 朝鮮 歷史의 작은 一學徒요 朝鮮 精神의 어설픈 一探究者로 진실로 남달은 愛慕, 嘆美와 한가지 無限한 궁금서러움을 이 山河 天地에 가지는 者입니다. 자개돌 한아와 맑은 나무 한 밋동에도 말할 수 업는 感激과 興味와 또 聯想을 자아냅니다. 이것을 조금조금 色讀하게 된 뒤로부터 朝鮮이 偉大한 詩의 나라 哲學의 나라임을 알게 되고 또 完全 詳細한 實物的 오랜 歷史의 所有者임일 깨닫고 그리하여 쳐다볼수록 거룩한 朝鮮精神의 불기둥에 弱한 視膜이 딱 만히 엇득해졌습니다.<sup>10)</sup>

전설 연구에서 최남선을 비롯한 다수의 국토 순례기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행 체험에서 각 지역의 전설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춘순례』 「일위(一葦)로 고부만 횡단(古阜灣 橫斷)」에서는 ‘민족 설화의 일 원천(一源泉) - 흥무대왕(興武大王) - 채석강 - 웅연(熊淵)과 호도(虎島)’를 기록하였고, ‘도솔산·천왕봉·용문굴’에서도 그와 관련한 다수의 전설을 기록하였다.

9) 구인모, 「국토 순례와 민족의 자기 구성-근대 국토 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2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128~152쪽.

10) 최남선, 『심춘순례』, 백운사, 1926. 이 기행문은 1925년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25일간 호남지방을 대상으로 한 기행 체험을 기록한 것으로, 『시대일보』에 연재되었다. 그 후 1926년 3월 33개 주제로 재구성하여 백운사에서 간행했는데, ‘순례기의 권두에’는 단행본으로 간행될 때 추가된 것이다. 2008년 동방문화사에서 편집한 『최남선전집』 권6에서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이는 잘못 기록된 것이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자.

[一葦로 古阜灣 橫斷] 七日. 일은 아침 썰나서 雙仙峰을 中心으로 하여 朝震에 사인 邊山을 이모저모 쓰더 보았다. 百餘里 큰 山의 數十里 긴 골이 물도 있고 돌도 있고 들도 보고 바다도 보아서 有數한 一景勝임은 아니랄 수 업는 일이지마는 邊山景觀의 절반은 아모래도 森林美·鬱蒼美이든 것인데 지방 와서는 ‘蔽牛之大 干霄之榦’은 약에 쓰랴 업스매 마치 눈썹으로 中樞 삼든 美人, 나뭇으로 要素삼든 美男子의 얼굴에서 털을 썩 썩 아노흔 것 갖다. 꼬리업는 孔雀도 곱다면 곱지마는 그 美的 生命의 七分은 꼬리와 한가지 업서짓다 할 받게 업다. 傳說上으로 볼지라도 邊山은 항상 그 深密한 樹林으로써 說話 構成의 背景을 삼앗스니 盜賊의 巢窟이라면 이곳을 가져다 씌이, 神仙이라면 智異山, 妓生이라면 平壤 하는 셈과 가름도 곱흔 골과 만흔 나무가 잇기로 해서다.(중략) 一邊으로 邊山은 다른 名山과 가터 民族說話의 一大 源泉이 된다. 골작이 뽕뿌리마다 제가끔 說話의 비단치마를 두르고 있다. 이를테면 東쪽 山頂에 우쭉히 솟아 잇서 마치 一山의 監視者인 듯한 ‘울금바위’는 邊山에 잇는 傳說的 焦點이다.

국토 기행 과정에서 목격한 명산·명승은 그에 얽힌 각종 전설을 접하고 그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설은 기행문의 감흥을 일으키는 소재로 작용하였기에 여정의 일부일 뿐 치밀한 역사적 해석이나 흥미로운 서사 구조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순례 기행은 전설이 ‘조선적인 것’ 또는 ‘향토적인 것’의 상징으로 재해석될 여지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25년 이후의 전설은 민속학 또는 향토문학의 한 요소로 주목을 받게 된다. 더욱이 아동 교화 차원에서 동화와 전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설 채집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오월회의 지방 순회 동화 강연도 그 중 하나이다. 오월회는 1925년 6월 방정환, 고한승, 정홍교 등이 창립한 단체로 같은 해 8월에는 정홍교(丁洪教)를 중심으로 한 남선 순회 동화강연을 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지방 순회강연을 하면서 동화 구연과 전설 수집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11)</sup>, 『동아일보』 1926년 10월 31일~11월 1일 「조선 전설 삼학사의 현절사」는 그가 기고한 대표적인 전설이다.

오월회는 활동 과정에서 동아일보사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는데, 동아일보사는 오월회의 동화 구연뿐만 아니라 전설 수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1926년 5월 15일 동아일보사의 사고(社告) ‘독자본위 현상 기사 - 향토 내 고을 명물 예찬’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광고에서는 ‘명물(名物)’이라는 슬로건 아래 ‘명승’, ‘고적’, ‘전설’, ‘일화’를 포함한 독자의 향토를 소개하는 글을 모집하였다. “크고 적은 명물이 가지가지 솟빔이로되 남만 쳐다보고 저를 돌보지 아니하며 남의 것만 알고 제 것을 잇는 우리는 아직 제 명물을 들추지 못하고 제 자랑을 기리(譽)지 못하얏스니 심상하다면 심상도 하려니와 무심하거도 너무 무심하엿습니다.”라는 취지에 드러나듯이, 향토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記事)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광고에 따라 『동아일보』 1926년 6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99회에 걸쳐 ‘향토예찬’ 현상 기사가 연재되었는데, 각 지역의 명승·유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얽힌 다수의 전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26년 7월 3일 문경 백양환민이라는 투고자의 「문경 새재」에서는 새재라는 이름의 내력과 임진왜란 당시 신립의 전설이 나타나며, 7월 8일 「성진 명물 망양정」에는 절벽 위에서 정사를 즐긴 조사인이라는 인물 전설이 언급된다.

향토성을 기반으로 한 전설 수집은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가 경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사의 경우 1926년 12월 「내고장 풍속 습관」이라는 제목의 사고(社告)를 낸 적이 있으며, 조선일보사에서도 같은 시기 ‘취미와 실익 본위 4종 문헌 대모집’을 슬로건으로 ‘내 고장의 인물과 전설’을 모집했다. 두 신문사의 독자 현상 기사는 국토 순례 기행문과 같이 각 지역의 명승·유적 설명과 함께 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설 자체로서 독립적인 서사 구조를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전설이 산재해 있음을 인식하고, 전설이 민속성과 향토성을 상징하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선의 정신을 살리는 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11) 『조선일보』, 「정씨 동화 行脚」, 1926.7.26.

### 3.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

#### 1) 채집 전설의 서사성

국토 순례 기행이나 향토 예찬 차원에서 관심을 끌게 된 전설에 대한 관심은 1926년 이후 전국에 산재한 전설 채집 활동으로 이어진다. 김경남이 논의했듯이 이 운동은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1927년 10월 6일과 7일에 실린 「고전설 채집」이라는 사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사설에서는 “신화와 전설의 학적(學的) 고증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의 성소(聖所)를 환하게 데미다 보게 하얏스며”, “조선과 서방과의 민족적 문화적 연쇄 관계는 다른 저대(著大)한 사실에서보담 이 변변치 아니한 수편(數篇) 이담(俚談)의 분포상에 더 적절한 증험을 얻을 때 일편 야담(野談)의 가치를 업신여길 수 없이 된다.”라고 하여, 전설이 단순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서사임을 명확히 하였다.

‘고전설 채집’은 말 그대로 구비 전승되던 이야기를 채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설 채집이 이때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10년대 다수의 일본인이 조선의 설화를 채록하기도 했고, 그와 관련한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상징으로서, 민속과 향토성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조선 정신의 상징으로서 전설을 채록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렇게 채집된 전설은 기행담이나 명물 풍속담과 달리 한 편의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문학적 서사로서의 전설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sup>13)</sup>

12) 김경남,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 『동방학』 41,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9, 149~184쪽.

13) 물론 이 시기 이전 한국인으로 전설을 채집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발행된 『임석재전집 -한국 구전 설화』(평민사) ‘책머리에’에서는 “1918년과 1926년 채기(採記)된 것은 편자가 전라남도 출신의 학우에게서 수시로 들은 것을 1926년부터 그 이후 회상화되는 대로 채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1926년 이전에도 전설에 관심을 기울인 예가 있으나 이 전집 소재 전설도 기록된 것은 1926년 이후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완결된 서사 구조를 지닌 전설을 채집한 사례로 『조선일보』 1927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연재된 ‘내 고장의 인물과 전설’에 등장하는 24회 연재물을 들 수 있다. 이때 채록된 전설은 총 19편으로<sup>14)</sup> 전설의 근거가 되는 사당, 자연 환경을 제시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채록 편수가 많지 않은 까닭은 순수한 전설 채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고장의 생활’이나 현재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호남 관문 목포’처럼 교통의 변화를 소개하거나 ‘사업 성공자 소개’ 등과 같은 대중적 기호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전설도 그 일부로 다루어졌다.

동아일보사의 ‘고전설 채집 운동’은 전설만을 대상으로 한 구비문학 자료 발굴 운동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이때 채집된 전설은 『동아일보』 1927년 8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설의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총 52편이 수록되었다. 투고자 중에는 우이산인(10회), 학파한인(8회) 등과 같은 중복 투고자도 발견되는데 이는 전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체상 통일성은 없지만 구전 채록 방식을 취함으로써 당시의 구비문학 채록 양상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서사 구조를 갖춘 구비문학 자료로서 전설 채집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루어졌다. 이는 오월회, 조선전설동화회, 동아·조선일보의 전설 채집 운동 결과 전설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두 신문사는 연초가 되면 그 해의 지지(地支)에 해당하는 동물 관련 전설을 공모하거나 신춘문에 형식으로 ‘전설’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고전설 채집’ 이후 두 신문에 게재된 전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4) 「개성 송악산 오처(五處)의 음사(淫祠)」, 「황주 역사 김철산 일화」, 「평생 고수 왕촉의(平生固守 王觸義)」, 「출천(出天)한 효행에 도학 높은 은일사」, 「철원 김궁예(金弓裔)의 전설」, 「덕원 명사 김봉상 일화」, 「낙동강변 마들 개척사」, 「안동 마도령의 전설」, 「강서 강효자 일화」, 「문경 견훤의 일화」, 「사리원 김삼성의 전설」, 「웅진 이상룡의 전설」, 「죽순동 박치사 일화」, 「옥구 최고운 전설」, 「무릉동 백좌수 전설」, 「원명동 서산대사 전설」, 「덕원 거부 정만복」, 「정주 홍경래」, 「중화 정이산」, 「풍산 이몽호의 전설」 등 19편이다.

15) 김경남, 앞의 논문, 173~177쪽 참고.

〈표 1〉 1929년 이후 신문 연재 전설

	신문	연재일	비고
1	동아일보	1929.1.1.~1.7. (5편)	蛇의 전설: 구렁덩이 서선비 이야기, 순둥이와 有情死 이야기, 대명천자 주원장 이야기, 즉위하신 배암 이야기, 일생에 貪心聚財 죽어서 十丈 黃蛇
2	동아일보	1929.12.24.~ 1930.1.9. (9회 1편)	전설의 濟州島(제주 김두봉 기고): 성주 왕자전
3	조선일보	1930.1.1.~1.3. (3편) * 공모 입선작	龍馬의 入水化石인 '말바위'의 傳說, 楚莊王의 愛馬는 大夫禮로 말 葬事 - 穆王과 秦王의 名馬, 江華의 龍馬 '벌데춘'의 죽엄
4	동아일보	1930.1.3.~1.5. (3편) * 공모 입선작	馬의 傳說: 相思馬의 化魂, 白馬의 萬古忠魂, 千年의 沈碧 '신남' 龍馬水
5	동아일보	1932.6.25.~10.15. (54편)	각 지역 기고자를 중심으로 총62회 54편 전설 연재
6	동아일보	1933.11.21.~ 1934.10.21. (24회, 6편)	김규은(金圭銀) 기고: 호랑이 담배 먹을 때(4회), 열 다섯 소년(5회), 차돌장군(6회), 동배말 삼형제(6회), 진달래꽃(6회), 아리랑고개(3회)
7	동아일보	1934.1.1.~1.14. (3편) * 공모 입선	개의 전설: 주인의 은혜 갚은 개 慶州 崔富者집 이야기, 용왕을 구하야 준 개의 이야기, 개는 왜 마루밑에서 자며 찌꺼기 밥을 먹나
8	동아일보	1934.1.1.~1.11. (5회 3편)	개의 전설: 윤백남 '楡岾寺 緣起 實話 中の 白狗 傳說', '남원 오수', '하동 의구'

이 표에 나타난 전설은 106회 총 75편으로, 1회 1편의 작품도 있지만 김두봉의 「전설의 제주도(9회)」, 김규은의 「호랑이 담배 먹을 때(4회)」, 「열 다섯 소년(5회)」, 「차돌장군(6회)」, 「동배말 삼형제(6회)」, 「진달래꽃(6회)」, 「아리랑고개(3회)」와 같이 한 편의 전설이 여러 회에 걸쳐 연재된 경우도 많아졌다. 「전설의 제주도」는 탐라국으로 시작된 제주의 역사와 탐라국 성주 왕자가 고려말 조선 초 국토를 바치고 '제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과정을 서술한 뒤, 1902년 이재수의 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경과까지 첨가하였다. 따라서

기고자 입장에서 제주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므로 서사 구조를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주 왕자의 이야기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점과 이재수의 난과 관련된 일화가 포함된 점은 전설 서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29년 채집된 「구렁덩이 서선비 이야기」는 현전하는 광포설화 중의 하나인데, 이 당시에 이미 한 편의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구렁덩이신선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용이 되고자 한 뱀이 부처에게 빌어 서생원의 유복자로 태어나 뱀의 허물이 남아 있는 「구렁덩이 서선비」가 되었고, 이웃 최장자의 세 번째 딸과 혼인함으로써 허물을 벗고 승천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승천의 과정에서 신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좌절도 경험하고 “지금도 장독에 뱀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직하는 풍속이 생겼다.”는 풍속의 내용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풍속’을 증거로 채택한 점, 금기나 예언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서사성이 잘 갖추어진 전설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전설의 서사 구조는 1930년대 연재 전설에서 좀 더 명료해진다. 그 중 하나로 김규은의 전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호랑이 담배 먹을 때」에서는 원시 시대 조선인은 짐승을 길들이며 살았는데, 이웃 오랑캐들은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없어질 경우 조선을 침범했다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조선인은 호랑이를 길들이 오랑캐를 물리쳤는데, 이로부터 ‘호랑이 담배 먹을 때’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다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열 다섯 소년」은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한 육진 마을 사람들이 얼음이 얼 때

16) 이민희 외, 『고전문학교육론』, 창비교육, 2017, 292~293쪽에 따르면 전설은 ‘전승 과정에서의 진실성’, ‘역사적 인물과 지역성’, ‘신앙성과 설명성’, ‘비극성’의 차원에서 신화나 민담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화와 전설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동아일보』 1926년 11월 14일 사고(社告)에서는 ‘어린이 읽기 조흔 童話와 傳說 모집’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전설 속에 동화적 요소가 들어 있음을 의미하며, 『동아일보』 1930년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된 전수창의 「현조선동화」에서도 아동 동화를 ‘종교동화’, ‘과학동화’, ‘정서동화’, ‘소화(笑話)’로 구별하고, 과학동화에 ‘자연계답’, ‘역사답’, ‘발명·발견답’, 정서동화에 ‘슬픈 이야기 주제’, ‘사랑의 이야기(동정)’ 등과 같이 제재와 정서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즉, 역사적 소재를 대상으로 한 동화는 전설과 동화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를 기다려 두만강을 건너고자 하였으나 날씨가 따뜻하여 건널 수 없으므로, 몸이 가벼운 열 다섯 소년들이 대신 정벌에 나서기로 했으므로 그들의 승전을 위해 보름 전날임에도 보름처럼 환송회를 한 데서 육진 지역은 보름 명절을 14일에 지내게 되었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1929년 이후 채록 전설 가운데는 명승 고적의 유래에 관한 단순 설명보다 이야기 구조를 갖는 전설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문학사적 가치와 구비문학

193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 역사적 상징 또는 민속과 향토정신, 조선 정신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전설은 문학사적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된다. 물론 안확이 『조선문학사』의 「근고문학」에서 “국민 서사시로 민간에 회자하여 동화의 희곡화를 만든 것은 전설에 있으니, 삼국시대는 국민 영웅 전설의 연원”이라고 규정한 것<sup>17)</sup>처럼, 『삼국유사』, 『삼국사기』 소재 문헌 설화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에도 찾을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1927년 고전설 채집 운동뿐만 아니라 최남선의 『삼국유사』 교간본이 출간되면서 전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동아일보』 1927년 3월 29일 「조선 사학의 출발점-삼국유사 교간본」 기사에서 “조선학을 세우고 조선 아(朝鮮我)를 살피려 하면 삼국유사를 누구든지 알른 볼 수 있도록 보급 주찰(周察)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 점<sup>18)</sup>이나, 5월 23일 최남선이 ‘원시문화 연구와 고문헌 전설의 가치’를 “역사와 신화와 종교는 일체의 삼면”이라고 규정하고, 종교학적·민속학적 방법을 전제로 ‘과학적 방법과 이론’에 의해 ‘침폐유매(沈蔽幽昧)한 비기(秘機)’가 된 전설을 들추어 낼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 점<sup>19)</sup>은 전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연한 논리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손에 의해 고전설 채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문학사적 관점에서 전설의 가치는 역사적, 민속적, 향토적 상징 또는 ‘샤머니즘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룬다.<sup>20)</sup>

17) 안확,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18) 『동아일보』, 「조선 사학의 출발점-삼국유사 신교간」, 1927.3.29.

19) 『동아일보』, 「원시문화 연구와 고문헌 전설의 가치」, 1927.5.23.

민속학과 샤머니즘 연구 차원에서 전설 자료는 문헌 전설이 중심을 이룬다. 그 중 하나로 1931년 전후의 「처용 전설」에 대한 논쟁을 들 수 있다.<sup>21)</sup> 이 논쟁은 『신생』 1930년 1월호 손진태의 「처용전설」과 관련된 논문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논문의 핵심 내용은 “삼국유사에 보이는 처용 전설은 민속상 문신(門神) 연기 전설을 불교사상으로 착색한 것이며, 벽사진경(僻事進慶)의 주술적 가치를 가진 전설”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경(東京)’이라는 지명이 고려 성종 6년부터 쓰인 지명이므로 이 전설이 고려 이후의 모방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한 김재철과 안확의 반론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처용 전설 논쟁은 본질적으로 문학사보다 민속학 또는 민속극이 중시되었다. 그럼에도 이 논쟁에서 ‘역신이 처용의 처를 범했다’는 전설 플롯과 관련한 소설적 윤색을 흥미롭게 해석하고자 한 점은, 전설이 서사문학의 한 양식으로서 문학사적 차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흐름에서 1930년대 문학사적 차원의 전설의 가치를 주목한 연구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한국 고소설의 연원을 ‘설화’에서 찾음으로써 문학사적 관점에서 전설이 소설의 원형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고구려의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등과 같이 전해지지 않는 역사 기록을 필삭(筆削)하며 윤색을 더해 ‘풍부한 전설과 신화의 편영을 보여주는 유일한 보전(寶典)’이라고 규정하고, 『삼국사기』 권45, 47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당시 유행하는 소설적 인물이라고 풀이하었다. 특히 「도미의 처」와 「온달부(溫達婦)」는 각색이나 주제면에서 소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해석한다.

20) 이 시기 신화와 전설을 샤머니즘 차원에서 접근한 예로는 1927년 『계명』 제19호에 게재된 최남선의 「살만교차기(薩滿教筭記)」, 1930년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향토연구사) 등이 있다. 그리고 1927년 이능화의 『조선무속고』(『계명』 19호 소재)와 같이 일부 전설을 논거로 사용한 예도 있다.

21) 이 논쟁은 손진태의 ‘처용 전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김재철이 「조선연극사」(『동아일보』 1931.4.15.~4.25.)에서 발생 시기와 성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손진태는 『동아일보』, 「다시 처용 전설과 동경에 취하여 김재철 씨의 박론에 답함」, 1931.7.19.~7.23.에서 김재철이 자신의 주장 가운데 일부만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안확도 『동아일보』, 「처용고에 대하여」, 1931.7.28.~8.2.에서 두 사람의 논쟁을 종합하면서 처용 전설의 내용과 성격을 고증하고자 하였다.

[小説의 淵源으로 본 三國說話 都彌傳은 女子의 貞潔을 高調한 것으로서 敎訓的 意味를 만히 가졌고 溫達傳은 戀愛에 功名을 雙纏노흔 것으로서 戲曲的 色彩를 무르녹게 썩었다. 前者는 編戶의 少婦로되 帝王의 誘惑에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始終이 한갓가티 나아가 그 남편 都彌와 死生을 한가지로 한 곳에 貞潔의 極致를 表示한 것이며 後者는 一國의 公主로서 金殿玉樓에 富貴榮華를 一朝에 殫盡 버리듯하고 오즉 自己의 憧憬하는 戀人을 차즈려고 長安城 달알에 와 樂浪兵 窺 사이로 헤매이다가 自求하여서 乞人 溫達의 安해가 됨에 이르러 戀愛의 眞美를 發揮하였다. 都彌妻의 貞潔과 溫達婦의 戀愛가 要컨대 階級 關係를 超越하여 存在한 것은 兩者 사이에 一致됨을 보겠다. 그러나 都彌妻는 넘어나 貞潔에 徹底한이만 치 비록 荆山白玉의 美는 잊지만은 古本寒鴉의 單調한 寤寐가 업슴이 아닌즉 小説로서는 到底히 艷絶奇快한 主人公인 溫達婦에게 미치지 못한다. 溫達과 平壤公主와의 사랑은 實로 東洋에 잇서서 長卿과 卓文君과의 사랑과 함께 드물게 보는 超俗의 戀愛이다. - 모든 人爲的 拘束을 버서나 오즉 純眞한 聖愛에서만 살려고 하얏슴으로 그 周圍의 環境까지도 淨化하지 아니하면 만지 아니하였다. 卽 當時의 政治的 大勢를 舞臺의 背景으로 삼아 公主의 戀愛와 溫達의 功名을 經緯로 삼아 아름답게 짜내인 것이다.<sup>22)</sup>

‘희곡적 색채’, ‘염절기괴한 주인공’ 등은 문헌 전설이 흥미를 자아내는 이야기의 하나가 아니라 문학적 관점에서 소설 발달의 기본 요소가 되는 셈이다. 그는 이어서 『삼국유사』에 대해 “세인(世人)은 그 기록이 황탄함을 비난하나 황탄기괴(荒誕奇怪) 그것이 고대의 일사(逸事)·기문(奇聞)을 충실히 보여주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기이(紀異), 흥법(興法), 감통(感通), 효선(孝善)’에 수록된 결작들은 ‘건국신화, 결혼신화, 애국설화, 호소전설(湖沼傳說), 인과설화, 효선미담(孝善美談)’ 등의 신화와 소설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태종 춘추공(太宗春秋公)’과 ‘백제 무왕’ 전설과 관련하여, “이 두 로맨스는 사기(史記)에 잇는 도미처와 온달부(溫達婦)와 가티 시속(時俗)을 초월(超越)한 사랑이며 가장 자유스러운 연애결혼(戀愛結婚)으로서 세인의 구가(謳歌)를 맞든 것이며, 괴환(怪幻)한 설화(說話)에서 일보(一步)를 나아가 질적(質的)으로 상당히 소설화(小說化)한 것”이라고 평가한다.<sup>23)</sup> 이 표현

22) 김태준, 「조선소설사(6)」, 『동아일보』 1930.11.7.

은 설화가 황탄기괴, 괴환(怪幻)함을 특징으로 하는 데 비해 소설은 체재(體裁)와 내용 면에서 윤색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국 소설사는 삼국시대 설화로부터 고려시대 패관문학, 조선 초기 '일기, 지리, 시화(詩話), 실록' 등 각종 문헌의 수필류 야담(隨筆流 野談)의 '전기문학(傳奇文學)'을 거쳐 한문소설의 발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구비전설(口碑傳説)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정립하는 연구는 문헌전설을 대상으로 한 문학사 기술의 확장 심화와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미진한 측면이 있다. 그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지속적으로 이어진 전설 채집 활동을 중심으로 구비전설연구와 창작 기법의 발달 차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일제강점기 전설에 대한 문학적인 맥락을 짚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제강점기 전설의 역사적 맥락도 간과할 수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1937년에 이른바 '역사문학 담론'을 이끌어 간 한식(韓植)의 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식은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를 들자면 "테마의 확대, 로만의 구성, 풍부한 장르 개척, 언어형식의 확립"을 통한 역사문학 개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훌륭한 역사소설은 푸쉬킨의 『대위의 딸』과 같이, "여행 체험에서 획득한 공문서, 표면에 나타난 역사적 문헌, 그 이외 개인의 기억, 향간의 전설"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재료를 수집하는 데서 창작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4)</sup> 또한 1937년 리얼리즘 창작 기법과 관련한 논쟁에서 '역사적 제재'를 중심으로 한 문학의 가치를 논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역사문학 담론'은 전설을 포함한 역사소설의 특성과 가치를 연구할 때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sup>25)</sup> 이뿐만 아니라 전설 채집 운동 이후 동화 창작 차원에서도 구비동화, 구비전설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童話文學과 作家] 흔히 童話라면 흑펜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義조훈 兄

23) 김태준, 「조선소설사(7)」, 『동아일보』 1930.11.8.

24) 한식, 「역사문학 재인식 필요(1)」, 『동아일보』 1937.10.3.

25) 강미정, 「인물사 서술의 관점에서 본 1920~30년대 사회와 역사문학론 연구」, 『어문학』 154, 한국어문학회, 2021, 271~305쪽.

弟 이야기, 세 가지 보개 이야기,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 독집이 이야기 등等的 無數한 口碑童話와 沈淸傳, 興夫怒夫傳, 洪吉童傳, 烏鵲橋 이야기, 三姓穴 이야기, 檀君, 箕子와 其他 慶州의 無數한 傳說, 神話와 金庾信, 李舜臣 等의 英雄譚을 聯想케 하는 것이 通例이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오랜 歲月 동안 民衆의 머릿속에 뿌리박은 것으로 누구에게나 共通的으로 口碑傳되어 내려왔다. (중략) 口碑童話란 文字的 記述이 아닐지라도 長久한 歲月 동안 遺傳될 때에 人間心理에 滿足을 줄 수 있도록 改作되고 洗鍊된 것이 적지 아니한 때문이다. 作家는 文學童話에 偏重하는 것보다는 口碑童話 中에서도 버리기 아가운 것이 있으면 多少 內容을 고쳐서라도 훌륭한 童話를 만들 必要가 있다. 너무 새것에 沒頭하여 옛것을 無視한다는 것은 不可한 思想일 것이다. (중략) 作家는 口碑童話를 蒐集하며 取舍選擇하여 永遠히 兒童 世界에 남겨노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 義務도 있다.<sup>26)</sup>

이 논문은 동화 창작을 위한 기반으로 구비동화(口碑童話)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역설한 논문이다. 학술적으로 구비전설의 가치를 규명하고, 그것을 채록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 창작 차원에서 구비전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은 주목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1920~30년대 구비전설 채집 활동은 역사문학, 역사동화 창작 방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흐름은 광복 이후 전설의 기원과 전승, 분류, 서사 구조상의 특징 등을 논의하고 발전시킨 구비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 4. 결론

구비문학의 한 양식으로서 전설은 이야기가 생성된 근거물을 중심으로 민간에 전해오는 서사를 뜻한다. 즉 전설은 설화문학의 한 양식으로 구비 전승성을 특징으로 하는 셈이다. 이처럼 문학 개념으로서 '전설 개념'은 1920년대 전반부터 통용되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구비전설 채집과 연구가 일본인으

26) 송창일, 「동화문학과 작가(1)」, 『동아일보』 1939.10.17.

로부터 시작된 점이나 신화와 전설, 또는 ‘고담’으로 불린 ‘민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은 일제강점기 전설 연구의 한계로 작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전설은 서사문학으로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역사성을 담보하는 상징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에게 전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구비 서사문학 발달 차원에서 전설 채집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전설 개념은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 이후 보편화되고 있다. 즉 넓은 범위의 설화 가운데, 신화와 전설, 민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남선의 경우 신화와 전설의 경계가 불분명한데 그 이유는 전설을 문학양식으로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조선 민족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자료로 다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적 상징으로서 전설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태도 가운데 하나였다.

둘째, 1920년대 전반부터 동아일보사, 개벽사를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담사 및 조사 활동은 구비전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26년 이후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는 향토문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명승, 고적, 전설, 일화’ 채록 활동을 전개했는데, 이때의 슬로건은 ‘내 고장’, ‘향토문화’였다. 이로부터 일제강점기 전설은 ‘민속’, ‘향토문학’을 상징하는 서사 양식으로 간주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전설은 서사문학의 한 양식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26년 이후 채록된 전설 중 상당수는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명승 고적이나 근거물의 유래를 설명하는 형식에서 이야기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넷째, 일제강점기 전설은 민속학과 샤머니즘 차원, 문학사 연구 차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문헌 전설을 대상으로 하나, 전설 채집에 따라 역사소설과 역사동화 창작 과정에서 전설의 가치가 재평가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역사적 상징으로서, 또는 민속과 향

토문학으로서의 전설이 갖는 가치를 탐색하고 전설 채집 활동을 통하여 전설 자료를 확보한 일련의 과정은 전설에 담긴 서사성의 발견, 문학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 등으로 확장되면서 광복 이후 한국 구비문학 연구의 중요한 토양이 되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 2. 논저

- 강미정, 「인물사 서술의 관점에서 본 1920~30년대 사화와 역사문학론 연구」, 『어문학』 154, 한국어문학회, 2021.
- 강재철,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자교의 발  
굴과 그에 따른 해제 및 설화학적 검토」, 『서사문학연구의 새로운 지  
평』, 단국대출판부, 2013.
- 구인모, 「국토 순례와 민족의 자기 구성-근대 국토 기행문의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2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김경남, 「일제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동아일보』 ‘전설의 조선’ 연재물을 중심으로」, 『동방학』 41, 한  
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9.
-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 설화』, 민속원, 2015.
- 김광식·이시준, 『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 연구』, 제이앤씨, 2014.
-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 저, 『新日本教育昔噺』,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 『신  
일본교육구전 설화집』, 제이앤씨, 2014.
-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저, 『朝鮮の物語集附俚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  
『조선이야기집과 속담』, 제이앤씨, 2012.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 손진태·최인학 편저,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 안 환,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新曜社.  
第14章 記紀神話の蘇生, 2001.
- 이민희·이호승·고화정·하운섭·송미경, 『고전문학교육론』, 창비교육, 2017.
-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엮음, 『大正十二年 傳説集』, 최인학 번안, 『1923년 조  
선설화집』, 민속원, 2010.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9-전라남도·제주도편』, 평민사, 1992.
- 조희용, 「일본어로 쓰여진 한국 설화」, 『어문학논총』 24,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2005.
- 최원오, 「일제강점기 조선 전설 자료집의 간행과 전설 범주의 설정」, 『구비문학연구』 54, 한국구비문학회, 2019.
- 한국학연구소, 『동명』, 한국학연구소, 1978.
- 현암사, 『최남선전집』 2, 현암사, 1976.

〈Abstract〉

### The Legend as a Historical Symbol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s Meaning as a Literary Narrative

Kang, Mi-Jeong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symbolic meaning of legends to Koreans and the meaning of collecting legends, focusing on the research and recording of legends of Korea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gend can be defined as a style of oral narrative handed down to the folk centered on the basis for which the story was created, and such a definition began to become common in the early 1920s. The leg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story that symbolized history in a situation where historical education for Koreans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collecting legends for readers of the the Dong-A Ilbo and the Josun Ilbo in 1926, a number of legends with a completed narrative structure were record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value of legends was re-evaluated not only in folklore studies on legends and their relevance to shamanism, but also in the study of literary history or in the process of creating historical novels and historical fairy tal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of general research on the origins of legends, characteristics of transmission process, classification of legends as a form of oral liter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mes and narrative structures. Nevertheless, the value of legends as historical symbols or folklore and local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discovery of epic-ness through legend-gathering activities, and interest i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literature must have become the soil for the study of Korean oral literature after liberation.

\* Key Words: Legend, Historicity, Folklore, Locality, Literature History, Epic-ness

· 논문투고일: 2022년 6월 9일 · 심사완료일: 2022년 7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2년 7월 25일
--